

사 업 개 요

I. 과제명

“인문마을 in 성북”: 인문학에서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길을 찾다.

II. 과제 설정의 배경

1. 성북구는 전통 주택 및 일반 주택가가 넓게 분포하며, 골목문화, 재래시장 등의 전통적 활동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는 현재의 생활터전이 성북구 고유의 역사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한 부분임을 시사한다.
2. 현재 성북구에서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통적 활동이 전제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은 성북구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3. 이에 성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결합해 과제 방향을 설정한다.
4. 성북구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성북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깨우치며 미래를 위해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은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문학 속에서 성북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단단히 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동덕여자대학교는 각 전공의 교학과 연구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이루어왔을 뿐만 아니라 지식융합연구소를 통해 학제간 연구 및 다양한 연구 성과를 융합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였다. 아울러 이것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작업을 다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실천적 경험은 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과 역량을 동덕여자대학교가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Ⅲ. 목표

1. 바람직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가치 확산
2. 성북구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
3. 생활터전에 스며있는 인문가치를 발견하여 정체성 유지, 자긍심 제고
4. 삶의 현장에서 대면적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소통하는 공동체 형성
5. 마을 인문학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 플랫폼 구축
6. 대중 인성 함양
7. 낮은 차원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인문학 콘텐츠 구성,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

Ⅳ. 협력기관

1. 협력기관

성북구청(주관 지자체), 성북구 평생학습관(강의 장소 및 인력 지원)

2. 협력내역

- 대응자금지원(현물) : 17,320,000원(강의장 사용료 포함)
- 강의장사용 : 평생학습관 강의장 사용

Ⅴ. 프로그램 구성

1. 구성 방향

강좌, 체험, 축제 프로그램의 내용을 과제의 목표에 최적화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협력기관의 타 인문강좌와 차별화한다.

2. 추진내용

성북구의 일반 성인과 단체 리더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문 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인문주간) 프로그램을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대주제 하에 다음과 같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1년차 “성북마을, 인문학을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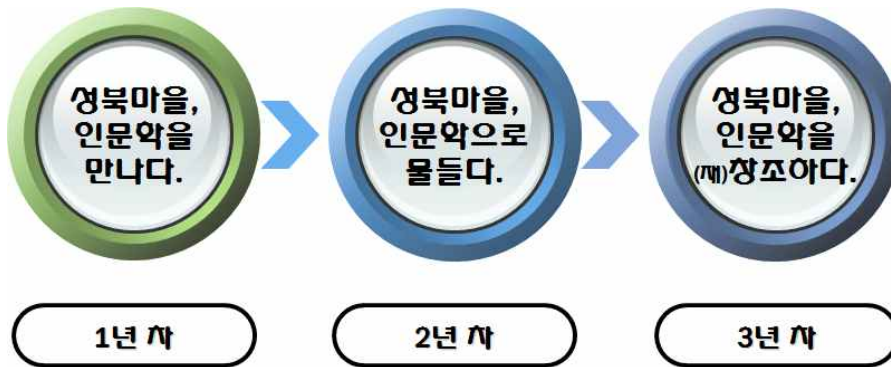
성북구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터전에 스며있는 의미를 발견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 2년차 “성북마을, 인문학으로 물들다.”

성북구 주민 스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바람직한 지역문화를 함께 향유하기 위한 실천의 힘을 인문학에서 찾는다.

- 3년차 “성북마을, 인문학을 재창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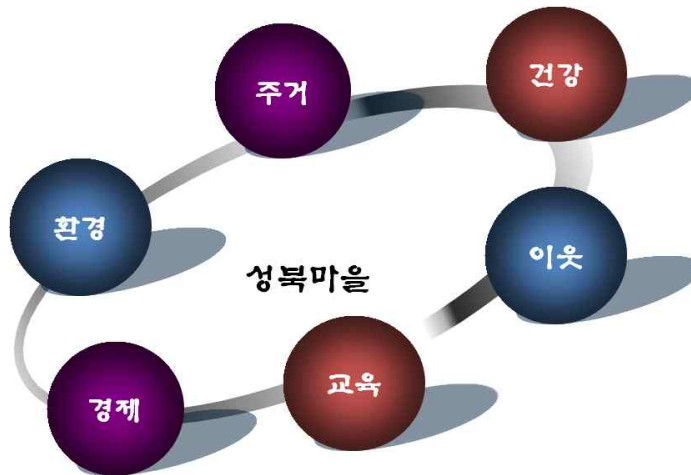
지역공간에 스며있는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 지향적 공동체 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한 인문가치를 모색한다.



[그림1] 연차별 목표

1) 인문강좌

성북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인문가치를 일상생활의 연장선상에서 찾기 위해 환경, 공간, 건강, 소통, 가족, 경제 6개 분야로 인문강좌를 구성한다. 각 분야 별로 강의대상에 따라 차별화하여 강좌를 구성하며, 1년에 18강좌(108회 강의), 3년간 총 54강좌(324회 강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그림2] 인문강좌 분야

‘환경 분야’는 성북구가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성북구 주민의 환경의식을 고양하고, 나아가 일상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는 <성북의 생명과 생활>, <생태논리학>, <환경과 미래사회>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공간 분야’에서는 일상의 구체적 공간에 담긴 공감과 배려의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행복한 개인의 삶과 바람직한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궁극적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나의 공간, 우리의 공간>, <공적공간과 프라이버시>, <공공장소의 윤리> 등의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건강 분야’는 성북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공동체 속에서 심신 건강과 삶의 행복한 마무리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웰빙, 웰다잉>, <공동체와 힐링>, <건강한 성과 사랑>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소통 분야’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과격한 행동과 왕따 등의 현상이 건강한 소통의 부재에서 발생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내용으로, <표현과 공감>, <소통의 수사학>, <네 마음을 말해봐> 등의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가족 분야’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가족 속에서 자녀들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내용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자리, 아내의 위치>, <부모학 개론>, <가족 속의 나는>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가 지향해야 되는 궁극적 가치가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건전한 경제 활동과 지속가능한 상생의 경제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것>, <공존의 경제학>, <내게 10억이 있다면> 등의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표1> 1년차 강좌 구성

	환경	공간	건강	소통	가족	경제
성인	성북의 생명과 생활	나의 공간, 우리의 공간	웰빙, 웰다잉	표현과 공감	남편의 자리, 아내의 위치	살 수 있는 것, 살 수 없는 것
단체리더	생태논리학	공적공간과 프라이버시	공동체와 힐링	소통의 수사학	부모학 개론	공존의 경제학
청소년	환경과 미래사회	공공장소의 윤리	건강한 성과 사랑	네 마음을 말해봐	가족 속의 나는	내게 10억이 있다면

3. 해당 지역 인문학적 자산 활용계획

본 사업의 인문체험 프로그램 <성북 마을 알아가기>는 지역 소재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성북구 주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정릉, 의릉, 수연산방, 만해 한용운 심우장, 박목월 시비, 윤동주 시비, 김소월 시비, 박재삼 시비 등의 유적이 활용될 것이다. 인문체험 <미술관 속 성북이야기>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소의 계층에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간송미술관, 성북구립미술관 등의 문화공간을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문주간 봉사 체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성북구 도보 탐방? 봉사!>는 도보로 성북구의 명소를 탐방하는 동시에 길거리를 청소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북한산 성곽, 한양도성, 길상사, 개운사, 대원암, 정법사, 경국사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인문축제(인문주간) 프로그램인 <성북마을 문화 특별전(전시회)>, <인문학 강연회(Part 1. 학자 강연 / Part 2. 예술가 강연)>, <청소년 전통 성인식(관례, 계례)>의 진행에는 아리랑아트홀 등의 공연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헌책방 등의 장소를 토론회 장소로 이용할 것이다.

4. 추진방법

1) 수강생 확보 방안

-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 대표나 혹은 모임의 지도자로부터 수강신청을 받게 하여 인문강좌를 듣게 한다. 단체 대표가 아니더라도 단체 활동/주민모임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잠재적 리

더로 파악하여 수강대상에 포함시킨다.

- 청소년들의 출입 빈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북구립도서관, 정릉도서관, 달빛마루도서관, 청수도서관, 아리랑 정보도서관, 서경로 꿈마루도서관, 석관동 미리내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홍보하며 청소년 강좌 장소로 활용한다.
- 성북구청, 성북마을, 성북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여 강좌 및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2) 소통 증대를 위한 강의법 및 구체적 방안

- 인문체험 및 인문주간 행사에 학생과 부모를 함께 초청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전통의례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와 바른 예절을 배우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체험하게 한다. 또한 마을 모임 및 단체를 초청하여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통된 신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연대감을 형성하게 한다.
- 또한 인문도시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을방송 '와보송'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방송망을 통해서 이 행사를 적극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인문강좌 및 주요 행사를 녹화하여 적절한 시기에 송출한다.

5. 인문학 확산 및 활용 기대효과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1)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성북구 주민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인문가치를 다양한 차원에서 체득할 수 있다. 특히 인문강좌의 내용을 철학, 사회학, 경제학, 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융복합하여 대중적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학계와 일반 사회가 소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 주민 개인에 대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프로그램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대면적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역할 함으로써, 소통하는 공동체 형성하고 시민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3) 프로그램 진행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과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전수, 재생산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 나름대로의 교육력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4) 단체 리더를 위한 특화된 강좌를 진행하여 인문가치의 확산 및 마을 인문학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문학 플랫폼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